

##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원종*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 1. 14(토) ~ 2. 10(금)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은 마닐라에 있는 마닐라대학교이고요. 저희가 수업을 듣는 곳은 마닐라대학교에서 버스로 4시간정도 떨어진 수빅이라는 지역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Times-slc에서 수업을 듣고 숙식까지 다 slc안에서 해결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말 좋고요. 선생님들, 한국 매니저분들, slc에서 일하시는 식당아주머니 모든 분들이 다 좋은 사람들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시설은 처음에 들어갔을때 실망 하실 수 있을텐데 바로 적응하실꺼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생기는 즉시 고쳐줍니다.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다.
수업	처음에 가면 다음날에 레벨테스트를 봅니다. speaking, listening, writing등에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반으로 분반을 나눕니다. 결과는 다음날에 바로 나오고요. 수업 또한 다음날에 바로 시작합니다. 수업내용은 1:1수업 이 3번 있고 그룹수업이 5번 있습니다. 그룹수업은 reading, 발음 수업, 멀티미디어수업, CNN listening수업, grammar 수업 이렇게 5가지이고 1:1은 voca, issue, 영어회화패턴 3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은 자기랑 안맞을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다들 저희 오기 전부터 모여서 수업연구도 하시고 그래서 선생님들끼리는 다들 친해서 분위기 또한 좋을 것입니다. 수업준비는 선생님들 마다 다른데 숙제를 자주 내주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Activity	Activity를 할 수 있는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서 학생들과 얘기하거나 대표이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정해서 주말에 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사님이 최대한 챙겨줄 수 있는건 챙겨주셔서 편하게 주말에 놀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한 activity는 beach가기, 요트타기, 리조트가기, 고아원에서 봉사활동등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수영복은 있어야하고요. 딱히 다른 준비물은 필요없고 beach는 거의 모든 곳이 입장료를 500페소정도 내고 들어가는 유료화 beach이고 다른 것은 어학원쪽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겨울에 가는 필리핀은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가끔 뜬금없이 비가 올때가 있는데 조금씩 내렸습니다. 우기때는 길 거리가 다 물로 채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건기때도 가끔 비가 오니까 우산 조금한 것은 챙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시원할때는 시원하고 더울때는 그냥 한국의 여름 같습니다.
안전	Subic이라는 지역은 매우 안전한 지역입니다. 타국에서 오는 많은 비즈니스 관계자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안전하고 치안에 대해서는 걱정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게이트 밖으로 나가서 올롱가포라는 지역으로 나가게 되면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조심하게 다녀야합니다. 근데 다니다가 보면 또 그것또한 적응이 되더라고요.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 숙소시설은 불편한 것은 없는데 좋은 시설은 아닙니다. 무언가 고장이 나면 말하면 바로 고쳐줍니다. 그리고 정글안에 학원이 있다보니까 먹을 것을 잘못두면 개미가 바로 꼬입니다.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좋은 룸메들 만나서 좋은 추억 만들고 왔습니다. 규칙은 평일은 10시까지 들어와야하고 금요일,토요일은 12시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일요일은 다음날 수업이 있기 때문에 10시까지 들어오셔야 합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기타( ) 밥은 처음에는 우리나라랑 쌀이 다르다보니까 밥알이 따로따로 눕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그것또한 적응이 되고 국이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어찌면 한국보다도 맛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교통	교통은 편리하지는 않습니다. 학원 뒤에 바로 FB라는 소형 버스가 다니는데 엄청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가격은 10~13페소정도이고 하버포인트나 SM몰가는데는 10분에서 15분정도 걸립니다. Subic이 아닌 올롱가포에서는 다른 낡은 자동차를 타는데 사용할 기회는 별로 없을 겁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35,400	출국 전 사전 납부
용돈	36만원(300달러)	Activity비용, 식사비용, 기념품
추가 용돈	2만5천원	기념품
합계	1,120,4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주말 Activity하는데 돈이 들고 여러 가지로 생각보다는 돈이 많은 곳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가기전에 환전을 충분히 해가는 것이 좋다. 저는 300달러 바꿔가서 조금 부족해서 2만5원정도 더 환전했었다. 바꿀 때 100달러짜리가 가장 이익이므로 100달러짜리로 바꿔가는 것도 좋다. 벌레가 많으므로 벌레 퇴치제 같은 것들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서서 더 공부하고 싶거나 계획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공부하는 책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방에서는 핸드폰이 잘 안 터지므로 전자사전을 가져가는 것도 좋다. 그리고 생각보다 덥지 않고 긴팔을 입어도 될 정도의 날씨일때도 많다. 특히 수업하는 강의실은 항상 에어컨을 켤 수 있기 때문에 겉옷도 여러 벌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첫 날 새벽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본 어학원은 생각처럼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지나면 지날수록 불편한건 거의 없어졌다. 일요일 새벽에 도착해서 점심먹기 전까지 레벨테스트를 본 후에 점심을 먹고 몇 명의 teacher들과 수빅 투어를 했다. 가장 처음으로 환전을 하고 핸드폰 유심칩을 사러 갔었다. 유심칩은 비싸지 않은 선에서 살 수 있었고 부족하면 따로 가서 살 수도 있다. 첫 주가 시작되고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영어가 잘 안 들렸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듣는 건 가장 빠르게 늘고 말하는 것도 늘어갔다. 말하는 것은 정말 자기가 공부하고 배운 것을 생각해줬다가 다음 날 써본다던지 하면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첫 주 금요일에는 마닐라대학교로 가서 현지 대학생들과 짧은 강의를 듣고 마닐라 근처를 구경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끼리 밖에 나가서 놀 수 있고 teacher들과 밖에서 만나 놀고 싶으시다면 어학원측에 허락만 받으면 놀 수 있습니다. 둘째 주는 좀 더 돌아다니면 맛집이라던지 유명한 곳에 가서 맥주마실 수 있는 곳도 많다. 이런 곳은 teacher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시간날 때 물어보면 다 알려주실 것이다. 제가 추천하는 곳은 피어 원 앤 그릴 바라는 곳인데 공연을 해주는 술집인데 분위기가 좋다. 그리고 테라스호텔이라고 300페소만 주면 호텔 옥상에 수영장하고 인당 300페소의 음식을 정해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 현지 teacher들도 저렴해서 많이들 이용하는 곳이다. 셋째 주 주말은 리조트를 갔었는데 그 리조트는 회원제라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도 이 사님이 특별히 부탁하셔서 가게되었는데 분위기도 좋고 수영장과 바다가 같이 있어서 함께 즐길 수 있고 레스토랑들도 맛있었던 곳이다. 다른 날은 요트도 탔었는데 운 좋게도 날씨가 좋아서 사진 찍기도 좋았고 물놀이 하기도 굉장히 좋았다. 그래도 가장 생각나는건 수업들이 가장 생각이 난다. 그룹끼리 같이 광고 만들고 뮤직비디오 만들고 하는 것들도 좋은 추억이었고 1:1수업도 많이 친해지고 많은 얘기도 하고 사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눠서 정이 많이 들었다. 졸업식때도 선생님들 중에 우시는 분들도 꽤 있었다. 필리핀에 가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영어에 대해서 제 자신에게 더 흥미를 북돋아주게 하고 싶어서 간 것이었다. 그 목표를 이뤘고 앞으로도 더 영어라는 학문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가져서 더 큰 목표들 또한 다 이루고 싶습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Subic Bay에서



요트 타러 갔을 때



요트 타기 전에



어학원 뒤 FB 기다리면서



어학원 안에 수영장에서



Gerry's grill에서 다같이